

#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곳이죠”

### 골수기증운동 펴는 생명나눔회 이사장 법장 스님

## 수요 인터뷰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법장스님(수려사 주지)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장 박진탁목사와 중앙적십자혈액원 김충진부원장 등과 지난 3월 21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사랑의 골수기증운동본부'를 설립키로 했다. 불교 기독교 적십자사가 하나되어 펼치는 백혈병환자 돕기 골수기증운동은 자비와 사랑의 행진으로 승화될 전망이다. 이 운동이 가시화되기까지 앞장 서온 법장스님에게 골수기증운동의 의의와 현황 전개방안등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사랑의 골수기증운동은 어떤방식으로 전개되는지요.  
 ▲일차 백혈병환자를 위해 골수기증자를 많이 이끌어 내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기증희망자 데이터관리와 골수검사는 적십자사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또 기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골수의 집'을 대형건물 로비나 지하철역구역 등에 만들어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장기기증보다 골수기증은 더 큰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골수기증은 헌혈처럼 신청만 하면됩니다. 그리고 골수기증도 주사기를 사용해 미량의 골수생성요소만 뽑아 옮겨 주는 간단한 시술이므로, 골수는 2만명당 1명꼴로 같은 유전자 자가 있기 때문에 기증신청했다해도 성사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자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백혈병환자등 골수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는 어떠한지요.



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사회정상상으로 옳지않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지요.

—생명나눔실천회가 94년 창립하여 지난 3월 21로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는데 보람과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장안(기)도한 생명나눔 실천은 진아(眞我)를 찾는 길이며 궁극적으로는 가는 불교의 근원정신입니다. 그동안 생명나눔실천회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각종 기증지도 1천9백8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기증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의 벽을 넘지못했다는 것과 신장기증자들의 검사비 조달이 가장 난감했던 점입니다. 보람이라면 무엇보다 기쁨이 크다는 것이지요. 신장기증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의 인사를 왔을때는 이몸을 던지더라도 이 운동을 해야겠다는 원력이 생깁니다.

김원우 기자

## 불교-기독교-적십자사 연대 자비 나누기 백혈병 환자 4만명...10만 기증자 확보해야

—스님께서 종교를 초월한 골수기증운동을 벌이신 동기가 궁금합니다.  
 ▲세상은 혼자보다는 둘이 또 둘보다는 셋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랑의 장기본부장인 박진탁목사는 그동안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일들을 함께 속의해는 도반이지요. 이번 일도 그런 차원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환자들은 종교와 국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명존중의 의미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골수기증운동을 펴야겠다는 뜻을 낸것은 미국의 한국계 사관생도였던 성덕 비우만군의 소식을 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보사부 조사결과 골수기증이 필요한 재생불량성 빈혈과 백혈병환자는 3~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2~3천명씩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이를 위해 3년 동안 10만여명의 골수기증자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최근 인간복제등 생명에 대한 다른차원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듯 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생명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학의 힘으로 생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처사지요. 조각푼처럼 찍어내는 인간복



◇중앙승가대학은 지난 3월 21일 김포학사 착공식을 가졌다.

## “불사성공 이제부터”

### 승가대 김포학사 '첫삽' 280억원 확보 '속제'

중앙승가대 '제2 건학(建學)'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지난 3월 21일 김포학사 착공식을 가진 중앙승가대는 학사이전 다음해인 99년까지 종무행정학과 등 6개학과를 신설, 총재 학과 9백80명의 학생유치 및 대학원과 각종 연구소 설립 등 발전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학사 건립에 따른 예산부족과 전통강원과는 다른 종합적인 승가 교육도량으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학사이전에 따른 재원확보. 9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이전 학사 신축 기부금 및 후원회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불과 2천7백여만원뿐이다. 종단에서는 사찰분담금으로 95년도에 20억원, 96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지금까지 발전기금 형식으로 6억1천만원만 집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5·96년 두 차례의 후원법회에 서 모두 20억원의 후원금을 약정 받았으나 들어온 후원금도 거의 없어 공사비 2백80억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4년제 정규대로서의 면도일신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속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불교학 연구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발전방향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불교학 외에 한의학과나 문화재학 등 인접학문 신설과 개설예정인 종무행정학을 공부할 경우 기본교육은 어떻게 이수토록 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 “직영사찰 해제나 존속이냐”

### 총무원-은혜사, 선본사 운영 놓고 공방

선본사(일명 갖바위) 직영사찰 해제와 관련 지정배경이 '사고사찰'이나 '우량 사찰'이나를 놓고 조계종 총무원과 해당 교구본사 은혜사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총무원측은 지난 94년 제2·3차 개혁회의에서 선본사가 사고사찰로 지정됐으나 10차 개혁회의에서는 우량사찰로 재지정돼 직영사찰해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혜사측은 서의현 前총무원장 당시 사유화로 인해 한시적인 직영사찰로 지정됐으나 2년간 직영을 통한 정상운영 등 현재는 사고사찰 상태가 아니므로 직영사찰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계종단 내부의 첨예한 문제로 급부상된 선본사 문제는 지난 3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30명이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에 따른 안전대책 요청서를 중앙종회에 제출,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제125회 중앙종회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더욱 불거졌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3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직영사찰 해제를 요청한 것은 94년 개혁회의 당시 직영사찰 지정 취지에 대한 오인과 중립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한 "선본사는 재정이 우량한 사찰로 중단목적사업에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직영사찰로 지정됐다"며 "종회안전대책은 개혁회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통대표 정화 지선) 선우도량(공통대표 도법 현봉)은 "직영사찰 해제를 사려도 제기했다. 선본사는 정평안 약사기도영험도량으로 전국에서 불자들이 연중 모여오고 있다. 특히 음력 초하루부터 초3일까지는 기도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96년 수입은 약 36억원으로 재정부유가 몹쓸가락안에 꼽히는 상위권사찰이다. 이처럼 조계종단 내부의 첨예한 문제로 대두된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의 건은 향후 종단구조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원만한 타결이 절실하다."



◇선본사(갖바위)의 직영사찰 해제 문제가 조계종의 첨예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선본사 부처님게 기도드리느 신도들 모습.

김종근 기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 앞을 노신사가 지나치며 말했다.  
 “나는 이 차 안타고 택시 타고 가겠네.”  
 택시를 타려고 콘길로 나서던 신사는 마음이 변했는지 다시 승용차 앞으로 온다.  
 “내가 택시를 타도 자네가 이 차를 타고 내 뒤를 따라 올테니 휘발유 한방울도 안나오는 나라에서 남미안나가 할 수 없이 이 차를 타고 가야겠네.”  
 차 안에서 수행하려는 젊은이가 묻는다.  
 “왜 이차를 안타시려고 하셨나요?”  
 “자네 주인은 아마 자식도 외제로 수입 할지 모르겠군. 내 자식이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나. 국산품 놔두고 도대체 이런 외제 승용차를 왜 타야한단 말인가.” 드라마의 한 장면이다.  
 한심하고 멍청한 사람들의 사치병·외재병이 갈수록 경계를 병들게 하고 국민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 수입품에 밀려 국산품이 사라지고 있다. 신도불이가 옛말일까 두렵다.  
 백화점의 화장품매장은 이미 외제코너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가 위스키 수입 왕국이 되고, 세계영화시장의 '봉'이라니 무슨 낯뜨거운 일인가. 그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프랑스 패션업계의 물주가 될것인가. 30만원 넘는 팬티를 입고 1억원짜리 모피코트를 걸친다고 죽으면 한 줌 흙인 이 육신이 달라지는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기를 생 각한다면 과소비 외제사 치는 그야말로 아침이슬에 지나지 않는다.  
 3천만원짜리 수입건공이 심심찮게 거러 되고, 애견용 치약, 이류식·겉이 사람용보다 비싼데도 잘 팔린다. 호화결혼식뒤에 1천만원짜리 이바지 음식이 오가고 있다. 월수입 2백만원 가정에서 유치원생 아들에게 50만원짜리 외제옷을 사입힌 어머니가 있다. 어디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일부계층의 망국적 과소비가 우리사회에 전염병처럼 만연하고 있다.  
 “외제와 사치품을 먹고 입고 바르며 흥청망청 살아가는 골빈 국민여러분!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신차립시다. 그리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생각합시다.”

## 목어

### “자식도 수입하러나”

## 부처님 탄생 성지 룸비니 동산

### 8만4천 연등공양불사 및 천일기도 동참 권선문

일시 : 불기 2543년 음력 4월 8일  
서기 1997년 5월 22일 오시

장소 : 네팔왕국 바이라화 와 루판데이  
룸비니동산 부처님 탄생하신 곳

■ 부처님 탄생성지 청정 불사

네팔 룸비니동산 부처님 탄생성지는 연간 전 세계에서 수백만명의 참배객이 다녀갑니다. 하지만 지극한 신심으로 성지를 찾아 환희에 젖는 불자들에게 위한 화장실과 식수대 등 성지 시설에는 없습니다. 성지를 청정하게 유지하고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불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뜻 있는 불자(佛子)님의 동참을 간절히 바랍니다.

●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1996년 5월)부터 청소부 3명을 두어 성지 청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 계속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걱정마십시오.

귀위 삼보하옵고, 불자(佛子)님의 가정과 직장에도 모든 부처님과 호법신중의 가호가 함께하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암축합니다.

산승은 지난 1996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에 네팔 룸비니동산 부처님 탄생하신 곳에서 2만(20,000)개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원만히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룸비니 동산 가꾸기 후원을 만들어 쓰레기통 100개, 손수레 3대, 1년간 사용할 청소도구 일체, 청소부 3명을 고용하고 1년분 임금과 제반 비용을 선지급하여 현재까지 성지 청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룸비니 동산 부처님 태어난 곳을 찾는 모든 분들이 사용할 공중화장실(현재 없음) 및 관리소를 건립키로 네팔정부 관계장관 및 룸비니 개발위원회로부터 부지의 건축허가를 완벽하게 다 받아놓았습니다. 건축 예정 장소는 룸비니동산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성스러운 정원 호수 옆입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불사를 진행해 왔지만, 불자들에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진행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사 진행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성지 청정불사(청소, 화장실, 식수대 설치 불사)만큼은 모든 뜻있는 불자들의 원력

을 한데 모아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불사를 원만 성취하기 위해 산승은 부처님게서 49년간 설립하신 8만4천 법문을 빌어 한 법문 한등 공양 8만4천원 동참 빈자 1등 정성으로 공양 천일기도를 올리기로 서원하였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성지 룸비니 동산 가꾸기에 적극 동참하시어 한량없는 미래상에 더하지 않을 선근공덕을 지으십시오. 전 세계 인구가 다 같이 복락을 누리는 기원도량이 될 룸비니 성지 8만4천 연등공양 및 천일기도에 화주시주님이 되시어 동참하시고 이 불사의 원만성취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이 권선문을 펴드립니다.

소원성취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지난해 룸비니동산 초파일 법회 원만 성취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40년(1996년) 초파일 룸비니동산 봉축 법회**

장소 : 네팔 룸비니동산  
연등공양 : 약 20,000개  
증명 및 참석:  
대성 석가사 주지 법신스님, 네팔 카트만두 코베코사장 정현일 거사, 룸비니 개발위원회 녹다산 전위원장, 네팔 문화부장관 발 비하두루, 고고학 총재 풀시담 바이드야, 트리브란대학 고고학교수 대표 마담, 태권도협회 총재 및 아스타대학 감독 더 프라지 구를, 룸비니 개발위원회 고문 비말라 난타스님, 세계 산악인의 집 빌라 에 베레스트 정영희 사장, 지배인 양 돌지.

그 외 통역과 제반 문서를 번역하고 한국과 네팔을 수차례 왕복하며 긴 여정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신 평택시 진위사 거주 귀연스님 후 후원회 위원들과 교수님, 태권도 사범, 경비를 서주신 군과 경찰, 그리고 지방 유지분들의 협조와 증명아래 원만 성취함.

전화 : (0333)62-4848(4월8일 4월8일) 62-6677(육바라일 칠월칠불)  
FAX : (0333)63-6677  
직통 : 011-264-6677(011-264-9191(구원구원)사무장)

네팔 주소 및 연락처 SEONG LI. KIN DONGHO.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YASA TEMPLE. LUMBINI SACRED GARDEN RUPANDIHI LUMBINI NEPAL  
TEL(FAX)977-71-29474(주지 법신스님 받아서 성일스님을 부탁하면 바꿔줍니다.)

승금계좌번호(농협 205031-52-066718)(축협125-72-06544-017)  
(국민은행 207-21-0151-231)(우체국102517-0027521-12)예금주 김동호

네팔 송금시 CITY BANK NA NEWYORK N.Y. A/C No36083047  
HIMALAYA BANK FOR 14948 AO  
HIMALAYA BANK KATHMANDU DONG HO KIM

●룸비니 동산 가꾸기 불사를 같이 하실 스님과 신도님들을 모십니다. 원력만 계시다면 경비와 숙소는 제공하겠습니다. 직접 하신다면 산승이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음력 4월 8일 룸비니동산 부처님 태어나신 곳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및 기도와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우편번호 : 451-86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652 소원성취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건산리 산4번지 진위사 주지  
룸비니동산 국제불교위원회 위원장  
룸비니동산 가꾸기 후원회 회장 성일 김동호 합장